

#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기술에 대한 일고찰\*

백낙천\*\*

## || 차례 ||

1. 머리말
2. 사전 표제어 선정
  - 2.1. 기본형과 이형태
  - 2.2. 동음어와 다의어
  - 2.3. 단일형과 통합형
3.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국어 어미 사전 편찬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접속어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과 방안을 바탕으로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을 위해 필요한 표제어 선정 기준과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 동음어와 다의어 문제, 단일형과 통합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의의 과정에서 관련되는 몇몇 접속어미의 문법적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는 국어 통사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어사전 기술에 충실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주제어 : 접속어미, 기본형과 이형태, 동음어와 다의어, 단일형과 통합형, 사전 기술

## 1. 머리말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bnc66@pcu.ac.kr

본고는 일차적으로 접속어미의 형식과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접속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다양한 의미를 구성요소의 형태에 근거하여 설명할 때 보다 명시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접속어미 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을 위해 필요한 표제어 선정 기준과 뜻풀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접속어미의 목록을 설정하고 문법적 기술을 함으로써 국어어미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필요한 문제들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한다.

접속어미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의미나 용법에 따른 분류에 근거하여 접속어미 목록을 제시하는 것보다 구성요소의 형태에 근거하여 접속어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접속어미 목록 선정에서 기존의 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국어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있어 명시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sup>1)</sup>

그런 가운데에도 이희자·이종희(1996)에서 국어어미를 대상으로 동음이의 및 다의적 관계에 대한 하위 유형을 체계화한 것은 사전 편찬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결국은 문법 범주의 하위범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으며, 임동훈(1998)에서는 국어어미의 사전적 처리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으로 첫째, 어미의 식별과 관련하여 표제어의 범위와 성격 문제, 둘째, 이형태나 준말의 처리 즉, 표제어 간의 문법적 관계 문제, 셋째, 뜻풀이 방식의 문제 등을 제시한 것이나, 서태룡(2001)에서 조사와 어미 가운데 형태와 의미 때문에 표제어 선정과 그 범주 표시, 뜻풀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

1)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백낙천(2003나)에서는 아래와 같이 접속어미 목록을 제시하고 기술의 편의를 위해 선어말어미가 통합된 접속어미인 ‘-거나’, ‘-거니’, ‘-게’, ‘-건만’, ‘-거든’, ‘-거늘’, ‘-건대’, ‘-느니’, ‘-느라니’, ‘-느라고’, ‘-느라면’, ‘-더니’, ‘-더라니’, ‘-더니만’, ‘-더라도’, ‘-더라면’과 현대국어에서 구성요소의 범주 확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접속어미인 ‘-도록’, ‘-을수록’, ‘-으랴’ 등은 관련 접속어미의 통합 관계를 살피는 자리에서 다룬 바 있다. 이는 국어가 마지막 구성요소가 핵인 언어라는 점을 주목하여 분류한 것이다.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김종록(2002)에서는 각 사전의 어미 표제어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표제어 선정의 기준 차이 때문이라고 하면서 첫째, 다의어와 동음어의 구별, 둘째, 선어말어미나 보조사 등을 포함한 여러 문법 소와의 결합형 어미의 처리, 셋째, 각 어미의 문법 정보 및 뜻풀이 방법 등을 해결할 문제로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도 동음어와 다의어의 구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어원적 유연성, 통사, 의미적 기능의 차이, 문법 범주의 변화, 문법화의 정도를 거론하면서 몇 개의 접속어미를 대상으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박준석(2003)에서도 선어말어미 ‘-느-’, ‘-더-’가 통합된 어미를 대상으로 사전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표제어 선정 기준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본고가 중점적으로 논의할 접속어미 목록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으며,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특히 표제어 선정과 관련하여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 동음어와 다의어 문제, 단일형과 통합형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sup>2)</sup>

## 2. 사전 표제어 선정

### 2.1. 기본형과 이형태

명사나 동사처럼 어휘형태소의 이형태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sup>3)</sup>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는 이형태들을 표제

2) 백낙천(2003가)에서도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에 대한 논의를 소략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 본고는 이를 보완하여, 표제어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3) 가령,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의 경우, 모음 어미 앞에서 ‘ㅅ’, ‘ㄷ’이 탈락하거나 ‘ㅂ’의 경우에는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뀌지만 기본형만 표제어로 등재할 뿐,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의 활용형은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다.

어로 등재하고 있다. 물론 형태소의 기본형과 이형태에 대한 ‘어문 규범’의 규정과 일반인의 문법 의식이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경우에서 다르다는 것이 사전 기술에서 관건이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국어학 연구의 학문적 결과를 반영하는 사전이나 일반인의 편의를 위한 사전이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금성판 국어대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와 ‘-아’, ‘-어서’와 ‘-아서’, ‘-어야’와 ‘-아야’, ‘-면’과 ‘-으면’ 등의 이른바 음운론적 이형태들을 모두 표제어로 등재하여 뜻풀이까지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기본형과 이형태에 대한 국어학적 지식이 미약한 일반인을 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사전의 국민 계몽적 성격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에 국어학 연구 성과를 반영할 목적의 사전이라면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형태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기본형만 등재하고 이형태는 등재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형태라는 것이 분포와 선, 후행 환경을 기술해 주어야 하므로 기본형만 등재하기가 곤란하다면, 적어도 뜻풀이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비경제적인 사전 기술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형태라는 것이 음운론적 환경에서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형태 관계에 있는 형태들의 서로 다른 음운론적 환경은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임동훈(1998)에서는 이형태 표제어들에 대해서 음운론적 환경과 관련한 문법 설명을 추가하면서 각각에 대해서도 뜻풀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본고는 표제어에 대한 단순한 의미 풀이에 대해서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이하게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이형태나 관련 형태를 표제어로 등재하되 기본형과의 관계만 기술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곧 조사나 어미의 기본형과 이형태 즉 ‘대표 형태’와 ‘변이형’을 구별한 것이다. 그러나 서태룡(2001)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연세 한국어사전>에서 밝힌 ‘일러두기’의 “대표 형태 정하기”에서 제시한 기준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령,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대표 형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가. 조음소의 유무에 따라 변이형은 조음소가 없는 형태  
 나. 모음조화에 따른 변이형은 양성모음의 형태  
 다. 받침의 유무에 따른 변이형은 받침 없는 말 뒤에 쓰이는 형태, 다만 ‘이-’의 유무에 따른 변이형은 ‘이-’가 있는 형태

이 중 (1 다)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1 가)와 (1 나)의 전반부 내용은 중복적 표현이므로 (1 다)는 후반부 내용인 ‘이-’와 관련한 내용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더욱이, 서태룡(200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어학에서 매개모음 ‘으’가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성모음보다는 음성 모음의 이형태가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세한국어사전>에서의 ‘대표 형태’의 기준은 국어학의 일반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일반인을 위한 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표제어는 매개모음이 있는 것을 대표형으로 삼고, 받침 있는 말 뒤에 오는 것을 대표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백낙천(1999)에서 기술하였듯이, 국어사전의 접속어미 표제어 선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어’와 ‘-어서’, ‘-고’와 ‘-고서’, ‘-으며’와 ‘-으면서’의 ‘-서’, ‘-으니’와 ‘-으니까’, ‘-다’와 ‘-다가’의 ‘-가’, ‘-으려’와 ‘-으려고’, ‘-느라’와 ‘-느라고’의 ‘-고’, ‘-자’와 ‘-자마자’의 ‘-마자’ 등을 잉여적인 요소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이형태 관계로 처리하면 접속어미의 목록을 확정하기 힘들어진다. 이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며, 특정 문맥에서 상호 대체될 정도로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구성요소를 잉여적인 요소로 파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성요소의 유무에 의해 통합상의 차이와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서’, ‘-가’, ‘-고’, ‘-마자’ 등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형태소이다. 그러므로 ‘-어’와 ‘-어서’, ‘-고’와 ‘-고서’, ‘-으니’와 ‘-으니까’, ‘-다’와 ‘-다가’, ‘-으려’와 ‘-으려고’, ‘-느라’와 ‘-느라고’, ‘-자’와 ‘-자마자’ 등은 별개의 접속어미로 다루어 표제어로 등재하고 뜻풀이를 하되, 통합상의 차이와 의미의 변별을 밝혀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sup>

이들 중에서 백낙천(2003나)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만 기본형과 이형태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자’와 ‘-자마자’를 가지고 형태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국어사전을 기술하는 데에 기초적인 근거가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자’와 ‘-자마자’에서 문제의 핵심은 ‘마자’이다. 본고는 ‘-자마자’의 형태론적 구성이 범상하지 않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와 ‘-자마자’의 관계를 푸는 실마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모든 경우에 ‘-자’와 ‘-자마자’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선, 후행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와 ‘-자마자’는 대체될 수 없다.

(2) 가. 윤주가 대전역에 도착하자 한참 후에 기차가 떠났다.

나. \*윤주가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한참 후에 기차가 떠났다.

(2 가, 나)의 차이는 ‘-자’는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허용하는데 반해, ‘-자마자’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 ‘마자’가 단순한 잉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마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 가, 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마자’가 갖는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서태룡(1987:216)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마자’가 선행절이 이루어지고 중지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구성 요소인 ‘말-’이 갖는 의미, 즉 선행절 사건이나 행동이 중지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마자’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없애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이다. 나아가, ‘-자’는 선행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행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후행절에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

4) 백낙천(2003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논의를 보다 확대하여 마지막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접속어미를 분류하고 개별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특징, 통사론적 특징을 구성요소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고 나아가 각각의 구성요소가 지니는 기본 의미에 근거하여 접속어미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한 것이다.

행동이 올 수 없다. 그러나 ‘-자마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이는 ‘마자’에 의해 시간적 간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3) 가. 윤주가 공항에 도착하(\*-자, -자마자) 환영 인파가 몰려올 것DL다.  
 나. 까마귀가 날(\*-자, -자마자) 배가 떨어지겠다.  
 다. 윤주가 공항에 도착하자 환영 인파가 몰려오(-었-, -고 있-)다.  
 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었-, -고 있-)다.

(3 가, 나)에서 ‘-자’가 불가능한 이유는 ‘-자’가 선행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행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후행절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3 가, 나)에서 ‘-자’의 후행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나 예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반면에 ‘-자마자’는 ‘마자’에 의해 그러한 시간적 간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후행절이 미래나 예정을 나타내어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3 가, 나) ‘-자’의 후행절을 (3 다, 라)와 같이 바꾸면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자’와 ‘-자마자’의 변별은 후행절의 서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데, 이것 역시 ‘-자’와 ‘-자마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만하다.

- (4) 가. 너는 집에 도착하(\*-자, -자마자) 손을 씻어라.  
 나. 집에 도착하(\*-자, -자마자) 손을 씻자.

(4 가, 나)에서 ‘-자’는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없는 반면에 ‘-자마자’는 ‘마자’의 의미에 의해 시간적 간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있다. 결국 ‘-자’와 ‘-자마자’는 형태론적 구성을 달리하는 접속어미이다.

지금까지 사전 기술을 위한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고는 ‘-자’와 ‘-자마자’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이렇듯 ‘-자’와 ‘-자마자’는 통합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을 이형태 관계라고 규정하기

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sup>5)</sup> ‘-자’와 ‘-자마자’는 형태론적 구성을 달리 하고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독립적인 접속어미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은 ‘마자’의 유무에 의한 것이므로 ‘마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로 더 이상 잉여적인 요소가 아니다.<sup>6)</sup>

한편,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금성관 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항목 기술을 보면 ‘준말’이라는 표현을 목격할 수 있다. 가령, ‘-든’과 ‘-든지’, ‘-듯’과 ‘-듯이’, ‘-다’와 ‘-다가’를 준말 관계로 기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으니까’는 ‘-으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고 ‘-고서’는 ‘-고’의 뜻을 더 똑똑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들의 마지막 구성요소가 잉여적인 요소가 아니며, 더욱이 이형태 관계나 준말 관계로 보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는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사전 기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국어사전에서는 ‘-다만’, ‘-지만’, ‘-으려만’, ‘-건만’, ‘-더니만’, ‘-어야만’은 각각 ‘-다마는’, ‘-지마는’, ‘-으려마는’, ‘-건마는’, ‘-더니마는’, ‘-어야마는’의 준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만’은 중세국어 ‘-만’이 ‘-마른’의 의미 일부까지도 흡수한 것의 직접적인 후대형이고, ‘-마는’은 ‘-마른’의 후대형이다. 본고는 ‘-마는’을 하나의 조사로 보기보다는 ‘-만’과 ‘-은’의 통합형으로 간주하므로 이들을 단순히 준말 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준말은 본말과 직접적인 관계일 것을 요구하며 단지 음운론적 원인에 의해 음절수가 줄어들 뿐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형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서로 다른 두 형태가 분포면에서 선행하는

5) 최재희(1991)에서도 ‘-자마자’의 생략형이 ‘-자’는 아니며, 모든 ‘-자’는 ‘-자마자’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와 ‘-자마자’를 각각 독립된 형태로 보았다.

6) 국어사전 기술에서 ‘-자’와 ‘-자마자’를 별도의 표제어로 하면서 ‘-자마자’의 뜻풀이에 대해서 <금성관 국어대사전>에서는 ‘그 동작을 하자 곧’의 의미를 추가하였고,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앞의 행동이 진행되는 순간과 뒤의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이 거의 동시적인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자 잇따라 곧 다음 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고 기술한 것은 결국 ‘마자’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결정되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즉, 준말에서의 음운론적인 동기는 음절수의 변화만을 초래할 뿐, 음운론적으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형태와는 다르다.<sup>7)</sup> 그리고 이러한 준말의 개념이 보다 엄격하게 국어사전에 적용되어야 표제어 선정 기준에서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어사전에서 뜻풀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준말’의 개념은 그 뜻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국어사전에서 ‘-고 하-’가 줄어든 형식의 단순한 준말 형태인 환원형 어미들은 표제어로 삼기 어려우며 본말로의 환원이 어려운 비환원형 어미들은 표제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임동훈(1998)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동훈(1998:101)에서는 ‘-다’와 ‘-다가’의 관계를 준말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뜻풀이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에는 문맥 중에서 ‘-다’를 선호하는 것과 ‘-다가’를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본고도 ‘-다’와 ‘-다가’는 이와 유사한 다른 접속어미들이 수의적 교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의 관용적 표현이나 반복 구성에서는 ‘-다’와 ‘-다가’의 쓰임이 어느 정도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 의식이 적어도 음운론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준말 관계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고가 임동훈(1998)의 논의와 차별되는 점이다.<sup>8)</sup>

7) 송철의(1993)에서는 준말은 인접한 두 음절이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 음절로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 형식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은경(2001)에서는 준말 종결형식의 사전 목록 현황을 제시하고 준말 종결형식의 형성 조건을 살폈다.

8) 준말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의어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를 ‘-다가’의 준말로 처리하는 방식은 얼마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와 ‘-다가’는 모든 환경에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지는 않으며, 이들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다’를 본말인 ‘-다가’에서 한 음절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와 ‘-다가’가 보이는 미묘한 차이는 ‘-다가’의 마지막 구성인 ‘-가’의 의미가 선행절을 미완결하고 후행절을 연결하는 의미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

- (5) 가. 윤아는 보{-다, ?-다가} 못해 회의장을 나가 버렸다.
- 나. 한참 카톡을 하{-다, ?-다가}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5 가, 나)에서 ‘-다가’보다 ‘-다’가 더 자연스러운 것은 접속의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없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6 가)와 같이 동일 행동의 반복적인 표현이거나, (6 나)와 같이 ‘하다’ 동사에 내포되어 쓰이는 구성에서도 ‘-다가’보다 ‘-다’가 더 자연스럽다.

- (6) 가. 영희와 나는 오{-다, ?-다가} 가{-다, ?-다가} 만난 사이이다.
- 나. 윤아는 하루종일 영희의 집 앞만 왔{-다, ?-다가} 갔{-다, ?-다가} 했다.

그러므로 ‘-다’와 ‘-다가’는 준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접속어미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고 두 접속어미가 보여주는 의미 차이는 각각의 뜻풀이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동음어와 다의어

일반적으로 사전 기술에서는 명사나 동사의 경우, 동음어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지만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하여 뜻풀이를 제시하는 등 그 표제어 선정 기준이 일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국어사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일관된 처리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동음어와 다의어가 명사나 동사와 같은 어휘형태소에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유효한 개념이므로 접속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의 경우에 동음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어사전 기술을 위해서는 표제어 항목 제시에서 명사나 동사의 처리 방식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태룡(2001, 2002)에서도

---

다가가 ‘-다’보다 접속의 기능이 더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학문적 목적의 ‘국어 어미 사전’ 편찬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와 실제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령, 접속어미 ‘-으니’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보이고 있음을 항목을 달리 하여 4개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어 마치 명사나 동사에서 동음어를 기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sup>9)</sup>

가령, ‘-으니’는 ‘인과’, ‘동시’, ‘계기’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즉, 후행절이 선행절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정도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긴밀한 경우에는 ‘-으니’가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시나 계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7) 가. 바람이 부니 낙엽이 떨어진다.
- 나. 윤주는 마음이 고우니 사람들이 좋아한다.
- 다. 내가 대전에 도착하니 비가 그쳤다.
- 라. 도심을 빠져나가니 한적한 자연이 펼쳐졌다.

(7 가)의 경우는 후행절이 객관적 사실로서 선행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후행절의 내용이 연결된 것으로 의미론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인과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7 나)의 경우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화자는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인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7 다, 라)는 후행절의 결과가 선행절을 이유로 해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지, 선행절과 후행절이 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백낙천(2003나)에서도 기술하였듯이, 계기적 연결의 의미가 ‘-어’나 ‘-고’가 보여주는 선·후가 분명한 계기성과 달리 ‘-으니’는 선행절이 ‘-은’에 의해 결정 완료로 인지된 다음에 ‘-이’에 의해 선행절의 내용이 유지되고 후행절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니’가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 기능은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용법이거나 통사적

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으니’를 6개의 표제어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으니’5와 ‘-으니’6은 중세국어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이 둘을 제외하면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4개 항목과 사실상 같다.

기능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으니’를 명사나 동사와 같은 동음어 처리 방식처럼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기보다는 하나의 표제어 항목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표제어 항목을 달리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의미적으로 구별하려는 처리 방식이다. 그런데 기존 사전에서는 ‘-어’나 ‘-아’에 대해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통사적 기능을 하나의 표제어에서 다루고 있어 명사나 동사에서 다 의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고의 처리 방식이나 기준과는 상통하지만 하나의 사전 안에서도 국어 어미 기술에서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더구나 ‘-어’나 ‘-아’의 사전 처리 방식이나 ‘-지’의 사전 처리 방식이 다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를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라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여 동음어와 같은 표제어 등재 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어 어미의 통사적 기능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단적인 예이다.<sup>10)</sup>

이러한 사실은 가령, ‘-은지’, ‘-을지’의 사전 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은지’, ‘-을지’는 그 범주조차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여 ‘-은지’에 대해서는 접속어미와 종결어미라는 두 가지 통사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을지’에 대해서 접속어미로 분류하였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을지’에 대해 접속어미와 종결어미의 통사 범주를 부여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은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 모음 ‘으’가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니지’, ‘-

10)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사전 기술은 다음과 같다.

-지<sup>23</sup>

「어미」

「1」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가 뒤따른다.  
「2」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sup>24</sup>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르지'를 '대표 형태'로 설정하면서, '-느지', '-르지'에 대해 연결어미의 범주를 부여하였으며, '종결어미처럼 쓰임'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범주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의미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은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낸다고 뜻풀이하고 있으며, '-을지'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의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뜻풀이는 후행하는 동사나 절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지 '-은지', '-을지' 자체의 의미로 보기는 곤란하다.

사실, 접속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의미나 화용론적인 해석에 따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태도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국어사전에서는 하나의 접속어미가 문맥과 분포에 따라 보여주는 다양한 통사 기능과 용법을 용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방식에서 어떤 일관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의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접속어미의 의미 기술에서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접속어미의 의미 기술

- '-고' : 나열, 동시, 대립, 계기, 이유, 원인
- '-으려고' : 의도, 목적, 예정
- '-으나' : 대립, 양보, 선택
- '-으며' : 나열, 대립, 동시
- '-으면서' : 동시, 대립
- '-어서' : 계기, 이유, 원인
- '-으니까' : 이유, 원인, 설명
- '-다가' : 전환, 조건, 이유, 원인, 지속, 진행중
- '-은데' : 설명, 대립
- '-어도' : 양보, 대립, 조건
- '-지만' : 대립, 설명
- '-도록' : 결과, 목적

문제는 과연 (8)에서 제시한 접속어미들이 다의적인 것일까? 이들의 다의

성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가령, ‘-은데’가 어떤 경우에 설명이고 어떤 경우에 대립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의 의미 변별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 정보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과연 선, 후행절의 동일 주어 여부, 선, 후행절 서술어의 의미 관계, 화용론적 전제, 함의 등에 의해 차이가 나는 의미를 이들의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의미 분류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조차도 ‘-고’가 대립의 의미를 지닌다고 동일한 용법을 보이는 ‘-어도’나 ‘-지만’ 등과 같은 범주로 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 원인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고’, ‘-어서’, ‘-으니까’, ‘-다가’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지도 않는다. 또 다른 예에서도 ‘-고’는 조건, 전환의 의미 기능 등도 가질 수 있어 이러한 방법대로라면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의미 기능에 대해 기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접속어미가 문장 상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 용법을 모두 기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용법이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기술하는 접속어미들은 그 이유를 통사적인 데에서 찾는다. 가령, ‘-고’는 선, 후행절이 동일주어일 경우에는 계기를 비동일주어일 경우에는 대립의 의미를 갖고, 동일주어 조건일지라도 서술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나열이나 이유, 원인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과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일반적 경향으로서의 기술은 될 수 있어도 접속어미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접속어미 논의에서는 우선 의미 범주를 분류하고 유사한 용법을 가지는 접속어미를 차례로 제시하다 보니 분류된 범주와 제시된 접속어미 목록이 차이를 보여 기본적인 의미의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령,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고’를 중심으로 언급하자면, 문제의 ‘-고’에 대해서 ‘나열, 연결, 병렬, 동시, 계기, 대립, 이유, 원인,’ 등 다양한 의미 범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의미 기술로 용례와 함께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국어사전마다 그 수효는 조금씩 다르다.

- (9) ‘-고’: <금성판 국어대사전> 나열, 대조, 진행, 종료, 이유/근거, 계기, 지속, 강조  
 <연세 한국어사전> 대조, 강조, 동시, 계기, 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  
 <표준국어대사전> 나열, 계기, 동시, 대립, 강조

일반적으로 ‘-고’와 같이 다양한 통사 기능과 용법을 가지고 있는 접속어미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다의 관계로 파악하여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방식은 명사나 동사와 같은 어휘 형태소의 경우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어사전에서 동음어로 처리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각각 등재해야 할 접속어미는 준말로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접속어미이다.

- (10) ‘-건’: ① ‘-거나’의 준말  
 ② ‘-거든’의 준말

그런데 사실 ‘-건’에 대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였으나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하나의 표제어에서 함께 다루어 마치 다의어의 처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건’으로의 축약은 ‘날씨가 개진 가거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거나’, ‘-거든’은 다른 접속어미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아예 ‘-건’을 ‘-거나’의 준말 하나로만 기술하고 ‘-거든’이 ‘-건’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간과하여 사전 기술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접속어미의 경우 동일 형식이 여러 가지 통사 기능과 용법을 보이는 것은 다의어로 처리하여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이 좋으나, 동일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통사 기능과 용법에서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는 접속어미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 단일형과 통합형

단일형과 통합형의 문제는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어의 어휘형태소에 해당하는 단어가 형성 방식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될 수 있듯이, 문법형태소인 어미도 그 구조에 따라 단일어미와 복합어미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복합어미는 다시 어미구조체와 통합형어미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물론 국어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단어와 복합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미구조체와 통합형어미를 구분하는 데에도 형태 분석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학자나 논의마다 다르며 이러한 사정이 국어사전 기술에도 저마다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구조주의 언어학의 형태 분석 원리인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는 한 형태소 체계 내의 구조적인 특징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적인 형태 분석에 있어 유효한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시적으로 재구조화된 통합형어미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변화 과정을 겪은 형태소가 통합상의 제약을 보이는 이유나 동일한 형태소가 다른 체계 내에서 따로 존재할 때 이들이 의미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공시적인 분포와 기능만으로도 형태 분석이 가능한 어미구조체와 달리 통합형어미는 공시적인 분포와 기능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재분석을 통해 그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복합어미는 공시론적인 분포와 기능만으로 분석될 수 있는 어미구조체와 통시론적인 재구조화의 결과로 공시론적인 분포와 기능만으로 분석되지 못하는 통합형어미로 나뉘는데, 국어의 접속어미 중에는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한 단일형 접속어미 ‘-어’, ‘-지’, ‘-고’ 등도 있으나 대부분의 접속어미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재구조화된 통합형어미이다. 단일어미는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지만 복합어미 중에서 어미구조체는 형태 분석의 대상이 되므로 그대로가 사전 표제

11) 이와 같은 관점은 서태룡(1987), 백낙천(2003나), 박준석(2003) 등에서 확인된다.

어가 되기는 곤란하고 통합형어미만이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전이 이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sup>12)</sup>

형태 분석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를 접속어미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음절 단위의 형식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고자 했던 국어 문법의 잘못된 관행이 국어 문법사의 연속성과도 배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으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으며’를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한다면 현대국어 화자들이 인식하는 ‘-음’의 존재는 밝혀낼 수 없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 (11) 가. 운아는 시인이며 소설가이다.
- 나. 윤주는 예쁘며 착하다.
- 다. 영희는 공부를 하며 음악을 듣는다.
- 라. 영수는 밥을 먹으며 TV를 본다.
- 마. 남편은 노래를 부르며 아내는 춤을 춘다.

(11 가, 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계사나 상태동사인 것으로 이때의 ‘-으며’는 결정된 내용의 나열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대칭성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그만큼 선행절과 후행절 각각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11 다, 라)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주어이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동작동사이면 이때의 ‘-으며’는 결정된 내용의 나열보다는 동시에 인식되는데 그 이유는 ‘-음’이 선행절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선어말어미 ‘-거-’, ‘-느-’, ‘-더-’가 통합된 접속어미와 관련해서도 단일형과 통합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 문제를 ‘-느라

---

12) 임동훈(1998)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어사전에 ‘-느-’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느-’에 대한 문법 정보가 국어사전에 충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느냐’를 ‘-느-’와 ‘-냐’로 나누어 표제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하였다. 김종록(2004)에서도 통합형 접속어미의 경우 문법화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전 표제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의 ‘실용성’을 감안하더라도 표제어 선정 양상이 사전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느라고'에서 '-느-'의 존재를 확인할 때, 우리는 '-느라고'가 '-으려고'와의 의미 상관성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는 형태 분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단일형과 통합형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가령, '-느라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주어이며, 선어말어미로 '-었-', '-겠-'이 결합할 수 없고,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sup>13)</sup>

(12) 가. 윤주는 시험공부를 하{\*~었-, \*~겠-}느라고 ei 밥을 새우{\*~어라 \*~자}.

나. 윤아는 크{\*~었-, \*~겠-}느라고 ei 밥을 많이 먹{\*~어라, \*~자}

그런데 (12 가, 나)에서 제약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느라고'의 구성요소인 '-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느-'는 상태동사에는 직접 결합할 수 없고 동작동사에만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느-'의 의미를 '진행'으로 기술하는데, 이때의 '진행'은 동작동사가 갖는 의미의 속성에 기인할 뿐, '-느-'는 기본적으로 현재지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완결의 '-었-'이나 미지각의 '-겠-'이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명령형과 청유형은 기본적으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화자가 청자의 희망이나 소망을 곧바로 청자에게 행동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느라고'의 후행절에 명령형과 청유형이 올 수 없는데, 이러한 설명의 근거에는 '-느-'의 존재가 있다.

또한 마지막 구성요소로 조사가 통합된 접속어미들은 현대국어 화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형태 분석이 가능한 예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조동사나 의존명사가 통합된 예들까지도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어사건 기술을 위해서도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단일형과 통합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필요하다.

'-을수록'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을수록'은 '\*~은수록', '\*~는수록'이 불가

13) 이러한 제약 조건에 대한 기술은 최재희(1991)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능하여 ‘-을’의 분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을수록’ 다음에 조사 ‘-에’가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록’을 명사적 요소로 본다면 ‘-을’은 구조적으로 관형사형어미일 가능성만 남는다. 특히, 의존명사 ‘스’가 관형사형어미 ‘-을’에만 통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수록’은 하나의 단위는 아닐 것이다.<sup>14)</sup> 또한 형태 분석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령 ‘-도록’이 동사 어간에만 결합한다는 통합상의 특징으로 볼 때, ‘-도’가 중세국어 의존명사 ‘드’에 소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이유를 국어에서 명사가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대국어 접속어미에서 의존명사 ‘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테’, ‘-은들’ 등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통합되어 재구조화된 통합형이라는 점에서 ‘-도’가 명사적 요소임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들 듯하다. 가령, ‘-은들’에서 마지막 구성요소로 조사 ‘-을’을 확인하게 되면 ‘-을’ 앞의 ‘드/드’는 통합 구조상 명사적 요소가 되며 ‘-은’은 관형사형어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서태룡(1987:221)에서처럼 ‘들’ 자체를 명사적 요소로 보고 ‘-은들’이 선행절의 내용을 화자가 가정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을 ‘들’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결정 완료로 인지된 선행절을 정해진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동격 구성이어야 한다는 구조적 필요성에 의해 ‘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15)</sup> 이것은 ‘-은’과 통합되는 ‘드’가 ‘-을’과 통합되는 ‘스’의 대립적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된 표제어 선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았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낙천(2003다:26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았자’는 그 형태론적 구성이 매우 특이하

14) 서태룡(1987:227)에서는 형태론적 구조의 문제로 ‘수록’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가 서태룡(1997)에서는 의존명사 ‘스’와 조사 ‘-으로’와 ‘-이’로 분석하였다. 한편 백낙천(2003나)에서도 ‘-을수록’의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문법적 특징을 다룬 바 있다.

15) 한편, ‘-은들’은 중세국어에서는 ‘-은들’의 형태로 나타나 의존명사 ‘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ㄱ) 爛漫히 픈들 르스기 有益호리오 <두초18:1>

(ㄴ) 저겻 수를 호야 온들 엇디 머글고 <박초 상:2>

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접속어미 목록에서 ‘-았자’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접속어미로 기능할 때에는 ‘-았-’과 함께 쓰여 출현하는데, ‘-았자’가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가 <연세 한국어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와서 표제어로 실렸다. 가령 <표준국어대사전> ‘-았자’와 ‘-였자’를 사전에 실고 있는데, 다른 어미에 대해서 ‘종결 어미’, ‘연결 어미’라는 범주를 부여한 것과 달리 ‘-았자’의 범주에 대해서는 그냥 ‘어미’라고만 하여 다소 포괄적인 기술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았자’만 표제어로 등재하고 연결 어미로 간주하며, ‘-였자’, ‘-였자’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고 대신에 ‘-았뎡자’, ‘-였뎡자’, ‘-였뎡자’를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았뎡자’, ‘-였뎡자’, ‘-였뎡자’는 각각 ‘-(았, 었, 였)다고 해 보았자’가 융합된 이른바 환원적 융합형으로서 결국 남는 것은 ‘-았자’인 셈이 된다. 즉, 사전마다 표제어 선정과 뜻풀이에서 일관된 기준 없이 연구자에 따른 서로 다른 사전 기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국어 접속어미의 대부분은 종결어미, 명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선어말어미, 조사, 형식명사, 보조동사 등의 구성요소가 통합하여 하나로 인식되는 재구조화를 겪은 통합형들이며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하나로 인식되는 통합형은 공시적인 형태 분석으로는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일형과 통합형에 인식은 접속어미의 형태와 의미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며, 나아가 공시적 문법 기술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 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 분석에 대한 인식은 국어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단일형과 통합형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미 구조체를 제외한 단일형 접속어미와 통합형 접속어미는 모두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국어사전이 일반인들의 어휘 뜻풀이 참고에 편의를 제공하는 계몽적 목적의 국어사전의 효용성도 인정하지만 국어 문법의 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국어사전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국어 어미 사전 편찬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속어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과 방안을 바탕으로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을 위해 필요한 표제어 선정 기준과 뜻풀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 동음어와 다의어 문제, 단일형과 통합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몇 개의 접속어미를 대상으로 문법적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들 접속어미의 문법적 특징이 제대로 국어사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고가 제시한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 동음어와 다의어 문제, 단일형과 통합형 문제와 관련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국어사전에 표제어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일반인을 위한 사전 기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문적 목적의 사전 기술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안을 언급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어 접속어미의 사전 기술을 위해서는 표제어 기술과 관련하여 범주 표시 문제, 뜻풀이와 예문 문제, 관련 항목을 어디까지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다루지 못했다.

요컨대,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국어사전을 위해서는 이형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준말의 개념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음어와 다의어 문제도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에서 일관된 기술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통합형에 대한 보다 형태론적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가 국어사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dictionary headword description of conjunctive endings in Korean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purposes to explain dictionary headword description of the Korean conjunctive endings, and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its morphology and syntax based on its constituent.

Especially,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explain the systematic relationships among the Korean conjunctive endings forms and meanings and verify that the Korean conjunctive endings. By the way, this article focus on the basic-form and allomorph issues, the homonym and polysemic issues, simple form and restructured compound form issues to list up the criterion and method in Korean lexicographic description.

Additionally, through this paper, I can explain to clarify the relationship of the Korean conjunctive endings with the Korean endings, also with the overall the Korean grammar.

This paper is expect that the Korean syntax discussion can be explain more clearly than to depend on morphology, I expect th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reflected on Korean lexicographic description.

key words : conjunctive endings, basic-form and allomorph, homonym and polysemic, simple form and restructured compound form, dictionary description

## 참고문헌

### □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민수 외 공편,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백낙천, 『국어의 통합형 접속어미』, 월인출판사, 2003년, 1-300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최재희, 『국어 접속문 구성에 관한 연구』, 탐출판사, 1991, 1-229면.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1-892면.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 □ 논문

- 김종록, 「종결어미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75호, 한국어문학회, 2002, 1-19면.  
 김종록, 「선어말어미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84호, 한국어문학회, 2004, 39-73면.  
 박준석, 「국어 어미 {-느-} {-더-}의 사전 기술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3, 1-196면.  
 백낙천, 「접속어미 목록 설정과 관련한 몇 문제」, 『동악어문논집』 34집, 동악어문학회, 1999, 143-164면.  
 백낙천, 「국어 접속어미의 형태론과 사전 기술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가, 1-28면.  
 백낙천, 「‘-자’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교육』 11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다, 247-271면.  
 백낙천, 「접속어미 ‘-느라고’와 ‘-으려고’에 대하여」, 『국제언어문학』 26호, 국제언어문학학회, 2012, 203-222면.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1-259면.  
 서태룡, 「국어사전의 ‘-이’ ‘-가’ ‘-은’ ‘-을’의 범주와 뜻풀이」, 『동악어문논집』 38집, 동악어문학회, 2001, 27-53면.  
 서태룡, 「국어사전의 ‘-아’, ‘-어’, ‘-야’, ‘-여’」, 『한국어문학연구』 3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2.  
 송철의,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동양학』 2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3, 25-49면.  
 이정택, 「접속어미 ‘-자, -자마자, -았자’의 의미와 문법」, 『애산학보』 17집, 애산학회,

1995, 71-27면.

이희자·이종희, 「어미형태류의 동음이의 및 다의성 처리 문제」, 『국어문법의 탐구 III』, 1996, 태학사, 289-355면.

임동훈, 「어미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1998, 85-110면.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형식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1, 1-339면.

이 논문은 2017년 7월 5일 접수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받아 8월 18일 게재 확정됨.